

봉주르 ~ 판소리

‘판소리 예찬’ 프랑스 페조디·한유미씨 부부

2001년 파리 공연 번역·자막 맡으며 관심 ‘아니리 광대’로 佛·벨기에 무대 서기도 박윤모 ‘아버지’ K-Vox 페스티벌 초청 “광주 국악·연극 등 유럽에 소개하고자”

그에게 판소리 한 대목을 청했다. 그는 항상 가방 속에 넣고 다닌다는 부채를 꺼내 ‘확’ 펼쳤다. 이어 흥보가의 ‘박타는 대목’을 슬쩍 들려준다. 몸짓이며 표정도 예사롭지 않다. 희곡작가이자, 배우, 번역가, 축제 예술감독인 프랑스인 헤르베 페조디(60)씨는 판소리 예찬론자다. 판소리 다섯 바탕을 프랑스어로 번역했고 무대에도 선다. 번역 작업을 함께 하는 동료에서 10년 전 든든한 동반자가 된 아내 한유미(46)씨 역시 판소리 전문가다. 페조디씨 부부가 최근 광주시립극단을 찾았다. 박윤모 예술감독의 대표작인 모노드

라마 ‘아버지’의 프랑스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페조디씨가 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지난 2001년 파리에서 열린 판소리 공연의 불어 번역과 자막을 맡게 되면서 부터였다. 파리 상향페스티벌 ‘판소리의 밤’ 중 ‘수궁가’와 ‘흥보가’ 번역을 맡은 게 시작이었다. 이듬해 파리가 올 페스티벌에서 열린 판소리 다섯 바탕 공연의 번역작업도 진행했다. “판소리는 어디에도 없는 고유의 장르다. 공연자 한 사람이 이야기도 하고 노래로 풀고, 연기를 하는 게 매력적이다. 판소리에는 문학, 음악, 연극적인 힘이 모두 들어있고,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페조디씨는 “다섯 바탕 모두 좋아하지만 여러 번 자막 작업하고 공연을 해서인지 ‘흥보가’에 가장 애착을 느낀다”고 했다. 페조디씨는 아예 몇 년 전부터는 무대에도 선다. 프랑스에서 판소리를 공연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예로부터 소리판에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아니리 광대’라 불렀다. 아니리는 판소리에서 장



스티벌의 주 프로그램 중 하나가 유러피언 아마추어 판소리 콘테스트다. 지난해부터는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결합, 유럽 대회 우승자가 소리축제에 참가하고 있다.

을 하는 중간 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일상적인 말투로 엮어가는 사실을 말한다. 페조디씨는 이야기꾼 역할을 하는 ‘아니리 광대’가 대 판소리 문법에 맞춰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진양조에서는 느리게, 휘모리에서는 신나게 리듬을 타며 아니리와 발림(손·발·온몸을 움직여 소리나 이야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몸짓)만으로 고수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의 공연이 끝나면 소리꾼이 등장해 정통 소리판을 이어간다. 파리, 벨기에 등에서 여러차례 공연을 가졌고 지난해말에는 국립국악원에서 민희성 명창과 ‘봉주르 판소리’를 진행,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등을 들려줬다. 지난 2007년부터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판소리 워크숍을 열고 있는 두 사람은 2013년부터 파리에서 ‘K-Vox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페

버지’를 떠올렸다. 기메박물관 공연에 이어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저희 페스티벌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한국의 소리를 중심으로 연극, 문학 등 다양한 우리 문화를 유럽에 알리고 싶어요. 이번 ‘아버지’ 공연이 한국의 현대적인 연극과 전통예술을 한꺼번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이번을 계기로 광주의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한유미)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하고 18년 전 파리로 건너간 한 씨는 심리언어학 박사다. 2000년대 초반부터 판소리에 매력을 빼앗겼고, 2012년 프랑스 파리 7대학에서 ‘세계 인류학 관점으로 본 공연예술로서의 판소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조만간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소설 번역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성석제의 ‘위풍당당’에 이어 현재는 김훈의 ‘강산무진’을 번역하고 있다. ‘수궁가’를 책으로 펴낸 부부의 꿈은 판소리 다섯 바탕을 모두 프랑스어로 번역해 출간하는 것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청춘’ 신입 단원 모집

극단 청춘이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 20세 이상 남녀로 직장인, 초보자 등 배우로 무대에 서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마감은 오는 6일까지며 입단 신청서 제출 후 7일 오전 11시 면담 및 오디션을 진행한다. 1989년 창단한 극단 청춘은 2007년 광주연극제 및 전국연극제 광주시 예선 최우수상을 수상한 단체로 연극 ‘피고지고 피고지고’를 비롯해 창작극 ‘미로’ ‘페르조나’ ‘그와나’ ‘유미래 실종 사건’ 등 100편 이상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서구문화센터에서 공연할 이미지극, 명작극, 창작극을 준비하고 있다. 극단 소속극장인 예술극장 ‘통’에서도 다양한 작품을 공연할 예정이다. http://cafe.daum.net/cctheater.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장용훈 ‘맞물림-형상’

무등갤러리 박지현·장용훈 부부전 이 시대의 비유...맞물림

조각가 부부가 작품을 빚어내는 원목가구 공방에는 나무향이 가득하다. 부부는 공방에 앉아 나무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고, 예술을 일인 테라피에 소품을 만든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인물, 풍경, 삶의 모습 등을 재해석한 작품을 만들면서 나무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무등갤러리는 3일부터 13일까지 조각가 박지현·장용훈씨 부부를 초대해 ‘이 시대의 비유(비유·比喩) and 맞물림’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아내 박씨가 나무판을 파내고 물감을 칠해 풍경과 삶의 모습을 풍자적이고 서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남편 장씨는 나무와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다 추상적인 형상의 조각으로 담아



박지현 작 ‘바닷가 마을’

낸다. 전시 주제처럼 박씨는 시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 잔잔한 호수를 유영하는 오리 떼, 자작나무 숲의 모습 등 서정적인 풍경을 담기도 하고 코가 빨개진 도둑 취한 개, 명품 하이힐을 신은 강아지 등 의인화된 개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풍자하기도 한다. 장씨는 맞물림, 즉 함께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작품에 담고 있다. 나무에 달린 지퍼가 맞물리면서 하나가 되듯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이들 부부는 조선대에서 조소를 전공했으며, 6년 전부터 공방 ‘나무처럼’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시 개막은 3일 오후 4시부터다. 문의 062-236-2520.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광장’ 출간 55년 기념 개정판

양극화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넘어 제3의 길을 모색한 장편소설 최인훈의 ‘광장’은 개작(改作)으로 유명하다. 1960년 잡지 ‘새벽’ 11월호에 발표됐을 때 원고지 600매 분량의 중편소설이었던 ‘광장’은 이듬해 정향사에서 단행본으로 낼 때 200여 매를 덧붙여 장편소설로 발표됐다. 이후 1973년 민음사판 단행본을 내면서는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고 갈매기 장면을 손질했다. 1976년 문학과학성사가 발간한 최인훈 전집을 통해서 ‘광장’은 또 한차례 개작 수준의 대폭 수정과 교정이 이뤄졌다. 문학과학성사는 189쇄를 돌파한 ‘광장’ 출간 55주년을 기념해 개정판을 내며 새로운 버전의 ‘광장’을 1일 선보였다. 이번 버전에서는 1960년 새벽지에 실렸던 삽화 6점을 수록했다. /연합뉴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용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용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TRIAUMA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타포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달 밸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친환경 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